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교사인식

류지영* · 김미진**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 교사 64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적응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현재 과학고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인 정원내 20% 비율이 다소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교사들은 선발비율을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현재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들과 학업멘토링 및 입학전 학업 지원 프로그램들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을 위한 후속연구들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사회통합전형,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선발전형, 소외계층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1981년에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설립된 과학고등학교는 현재 전국에 모두 20개가 있다. 2003년에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전형을 실시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신설되었고, 이후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5개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한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설립되어, 모두 8개의 영재학교에서 과학 영재들을 위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영재학교는 이공계에 재능을 가진 매우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여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일반학생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다소 불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입학전형을 따로 실시하고 있다.

* 주저자, jryu01@kaist.ac.kr

** 교신저자, mjkim77@kaist.ac.kr

사회통합전형은 교육 기회의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박효정, 한미영, 2016; 이재덕, 정미경, 정은진, 양희준, 차성현, 정향운, 2016),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정원내 20% 이상을, 과학영재 학교에서는 정원외 10%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통합을 위해 2009년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3호 3항을 개정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명시한 내용과 더불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 17조에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명시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처럼 과학고등학교에는 매해 20%의 학생들이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연구 중 대부분은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김안나, 김성훈, 2009; 박미희, 홍백의, 2010), 고등학생들의 사회통합전형에 관한 연구들은 자립형 사립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김정숙, 성열관, 2014)와,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후 선발비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와 함께 대상 학생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과 지원 대상자 자격의 확대, 단위학교의 선발 자율권 확대 등을 제안한 연구(주현준, 오세희, 2011) 등과 같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전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이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양태를 연구한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의 4가지 하위영역 중 학교규칙 적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학습활동적응 영역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한다(박지영, 박영숙, 이정은, 김수빈, 2017). 특히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학교 교육 외의 풍부한 교육 자원을 누릴 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습활동에 제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학습활동을 나타내야 하는 과학고등학교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업수행 및 학교 적응을 지도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사회통합전형이라는 명칭이 가진 함축적 의미로 인해 학생들은 이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김정숙, 성열관, 2014).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연구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기회균등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업능력이나 가정 배경이 일반전형으로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취약한 경우가 많아 대학 입학 후 부적응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들(강기수, 2012; 노경란, 윤수정, 2012)은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도 여러 이유로 학교 적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통합전형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립형 사립고나 대학 특별전형에 관한 내용들이고,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영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전형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과학에 관심있고 재능있는 많은 중학생들이 치열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이하 영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에 관한 연구는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영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이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적응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1. 과학고 및 영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 과학고 및 영재고의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사회통합전형의 이해

1.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사회통합전형 선발제도 이해

과학고나 영재고와 같이 국가의 지원 속에 운영되는 과학영재교육기관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발 정원 내·외로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소외계층들을 위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학고는 정원 내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은 사회, 경제적인 소외계층 학생들을 비롯해, 정치적인 요인이나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소외계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과학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크게 기회균등대상자와 사회다양성 대상자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상자인 기회균등대상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전체의 60%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순직군경 자녀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의해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은 사회다양성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

영재고는 과학고와 달리, 정원 외 10% 내외의 학생들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고 있으며, 과학고등학교와는 다소 다른 지원자격 및 선발양식을 가지고 있다.(표 2 참조) 영재고는 공통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소외계층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를 가진 학생, 북한이주민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과 유사하지만, 각 영재고별로 다소 다른 기준들을 정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1〉 과학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의 예

구분	순위	범위
기회 균등 대상자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5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법정 차상위계층) - 법정 아닌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혹은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60% 이하)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사회 다양성 대상자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1급~3급)자녀 - 순직군경,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

출처: S 과학고등학교 2017년도 입학전형 공고

〈표 2〉 과학영재학교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과학영재학교 공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경기, 서울과고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경기, 서울과고	차차상위 계층
경기과고	-부양 의무자가 가계 파산, 재산 압류, 질병, 사고, 장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소년 소녀 가장/가정위탁 보호 아동
대전 및 서울과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경기, 대전과고	소년소녀 가장/조손 가정의 자녀
	순직 군경, 소방관, 교직원의 자녀
대구과고	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외국 국적인 자

출처: 정현철, 류춘렬(2016).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운영현황,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보고서.

2.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사회통합전형 선발 현황

과학고는 정원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사회통합전형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 전국 과학고등학교의 일반 입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통합 입학자 현황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통합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20% 이상이지만, 학교마다 남녀 학생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과학고는 전체의 26.6%(440명)가 여학생이었으며, 영재학교의 경우에는 12.2%(101명)만이 여학생으로 성별 현황은 학교마다 크게 편차가 남을 알 수 있다. 과학고 및 영재고의 경우 사회통합대상자 전체 합격자 수는 362명으로, 이 중 남학생은 72.7%(263명)이며, 여학생은 27.3%(99명)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으로 전체 324명이 합격하였는데, 이 중 남학생은 70.1%인 227명이고, 여학생은 29.9%인 97명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전형 역시 남학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영재고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살펴보면, 학교별로 정원의 10%까지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정한 학교도 있고, 별도의 전형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정원의 10%까지의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비율을 엄수하기보다 영재고에 진학하여 학습이 가능한 기초학력을 지닌 학생들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 정원외 10% 내외로 선발하도록 자율권을 부여받은 영재고의 경우, 825명의 전체 입학생 중 전체의 4.6%인 38명만을 사회통합대상자로 선발하여, 매우 적은 수만이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차는 더욱 큰데,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38명 중 남학생은 36명이며, 여학생은 2명으로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전체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인 12.2%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을 구체적인 지원 유형인 경제적인 사유와 비경제적 사유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내용은 <표 3>에 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362명 중 58.8%인 213명은 경제적 사유로 선발되었고, 41.2%인 149명은 비경제적 사유로 선발되었다. 이 중 과학고의 경우, 경제적 사유로 사회통합전형에 선발된 학생은 전체 324명 중 60.1%인 197명이었고, 비경제적인 사유인 다양성 전형으로는 39.2%인 127명이 합격하여, 경제적 사유에 기반한 기회균등전형에 60%의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사회통합 대상자 전형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영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전체 지원한 학생 437명의 8.7%인 38명이다. 각 영재고마다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양상은 다소 다른데 경제적 사유로 11명을 선발한 학교도 있지만,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영재고도 있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영재고에 입학한 전체 학생 중 경제적 사유로 선발된 학생은 16명으로 전체의 42.1%였고, 비경제적 사유로 입학한 학생은 57.9%인 22명으로 영재고에서는 과학고와 달리, 비경제적 사유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가 경제적 사유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았다.

〈표 3〉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일반전형 및 사회통합전형 입학생 수(2016)

학교명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남	여	합계	남	여	경제적 사유	비경제적 사유	합계
강원과고	44	17	61	10	2	6	6	12
경기북과고	80	25	105	18	5	19	4	23
경남과고	75	30	105	13	7	11	9	20
경북과고	21	19	40	3	5	1	7	8
경산과고	49	11	60	9	3	4	8	12
대구일과고	57	23	80	13	3	10	6	16
대전동신과고	51	29	80	8	8	9	7	16
부산과고	73	27	100	14	6	12	8	20
부산일과고	79	21	100	13	7	18	2	20
세종과고	143	22	165	23	7	27	3	30
울산과고	46	15	61	9	3	6	6	12
인천과고	64	17	81	13	3	8	8	16
인천진산과고	51	29	80	10	6	8	8	16
전남과고	60	20	80	10	4	8	6	14
전북과고	44	17	61	9	4	7	6	13
제주과고	23	17	40	2	6	4	4	8
창원과고	58	22	80	13	2	7	8	15
충남과고	46	28	74	11	4	7	8	15
충북과고	37	19	56	7	4	2	9	11
한성과고	112	32	144	19	8	23	4	27
(과학고) 합계	1,213	440	1,653	227	97	197	127	324
경기과학고	114	12	126	6	0	2	4	6
광주과학고	82	13	95	4	1	—	5	5
대구과학고	80	10	90	6	0	1	5	6
대전과학고	84	9	93	3	0	—	3	3
서울과학고	123	8	131	11	0	11	—	11
한국과학영재학교	94	27	121	1	1	—	2	2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2	10	92	8	0	—	2	2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65	12	77	3	0	2	1	3
(영재학교) 합계	724	101	825	36	2	16	22	38
합계(28개교)	1,937	541	2,478	263	99	213	149	362

과학고와 영재고의 사회통합전형 입학현황을 분석해 보면, 과학고의 경우에는 선발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해 놓고, 이중 60%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우선 선발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지원율에 차이가 있었다. 지원율이 높은 과학고의 경우 과학고의 교육과정에 준비가 된 상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입학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원율이 낮은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학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 적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사회통합전형의 이해

1. 조사 대상 및 방법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64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중 과학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47명이며, 과학영재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17명이었다.(표 4 참조)

〈표 4〉 설문 참여자의 소속 학교

번호	과학고등학교		번호	영재고등학교	
	학교명	응답교사 수(명)		학교명	응답교사 수(명)
1	강원과학고	1	17	경기과학고	7
2	경기북과학고	7	18	광주과학고	1
3	경남과학고	1	19	대구과학고	1
4	경북과학고	1	20	대전과학고	3
5	경산과학고	2	21	서울과학고	1
6	대구일과학고	2	22	세종과학예술헌재고	1
7	동신과학고	10	23	인천과학예술헌재고	1
8	부산과학고	3	24	한국영재학교	2
9	세종과학고	1			
10	울산과학고	1		총계	17
11	인천과학고	1			
12	전남과학고	1			
13	창원과학고	1			
14	충남과학고	8			
15	충북과학고	2			
16	한성과학고	7			
	총계	47		총합계	64

이들을 개인적 특성별로 분류하면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전체의 85.9%가 남자 교사이며, 여자교사는 14.1%가 참여하였고, 교직경력별로는 약 75%의 교사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한 교사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87.6%의 교사들이 대학원 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사는 20명으로 전체의 31.3%를 나타내었다.

〈표 5〉 설문 참여 교사들의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55	85.9	교직 경력	10년 미만	16	25.0
	여자	9	14.1		10-14년	12	18.8
연령대	20대	6	9.4		15-19년	21	32.8
	30대	18	28.1		20년 이상	15	23.4
	40대	27	42.2	학위	학사	8	12.5
	50대	11	17.2		석사	36	56.3
	60대	2	3.1		박사	20	31.3

2. 설문내용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회통합전형 및 소외계층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 보고서들과 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 내용을 작성한 다음, 과학고등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입학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사 및 관련 전문가 4명과의 논의를 통하여 수정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사회통합전형으로 과학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선발전형에 관한 내용과 선발 후 학교의 적응 및 학업에 대한 내용의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6 참조)

〈표 6〉 사회통합전형 선발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 설문지 구성

영역	내용
개인배경	성별, 학력, 교직경력 등
사회통합전형 선발관련 교사의 인식	사회통합전형 정원내 20% 선발 적절한가? -예/아니오(이유와 적절비율은?)
	사회통합전형의 학교별 자율권 부여 여부
사회통합전형 학업 및 생활 적응 관련	현재 사회통합대상 선발 방식 동의 여부 -(부동의의 경우) 새로운 선발 방식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대상자 입학후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대상자 입학후 학업성취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대상자 수업참여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대상 학생들을 위한 자원 프로그램 필요성 여부
	현재 사회통합학생들을 위한 자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여부
서술형 질문	사회통합대상 학생을 위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대상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대상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대상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체제에 대한 의견

사회통합전형 학생 선발은 선발비율의 적정성과 선발방식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선발 후 학교 생활에 관해서는 학교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들, 학생의 학업적응 형태 및 기간, 현

제 하고 있는 학생지원 및 복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다음,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설문지는 문항의 내용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표시하게 하거나, 교사에게 간단한 의견을 서술하게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18.0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기술통계인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문항별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였고, 이에 교사들이 응답한 의견들을 분류하여 문항별로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하였다. 또한 본 설문에 참여한 교사 4명을 대상으로 2명씩 반구조화된 형태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자 2인이 참여하였으며,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1.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1) 설문 분석

매년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하는 과학고와, 정원의 10% 내외를 선발하는 영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았고, 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자 64명의 56.3%인 36명의 교사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비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9.2%인 25명은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오직 3.2%인 2명만이 “비율이 다소 낮은 것 같다”고 응답하여, 과반수의 교사들이 사회통합전형의 고정 선발비율을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비율이 다소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서술형으로 기술하라고 하였더니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예;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과 지원을 대비 선발비율의 문제(예; 일반학생들의 지원을 대비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비해, 20%의 비율은 높다고 생각한다.), 대학과의 연계 부족(예; 과학고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선발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5% 정도만을 선발한다.) 등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 비율이 다소 낮은 것 같다고 대답한 2명의 교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기회균등의 문제(예;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비율을 늘려야 한다.)와 함께 사는 사회 조성(예; 일정 수 이상의 다양한 학생들이 선발되어 함께 생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의 이유로 현재의 선발 비율보다 더 많은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선발비율을 고정적으로 정하지 말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을 학교가 가진 ‘브릿지 프로그램’등의 준비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이 적절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37.9%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적절한 선발 비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표 7 참조)

〈표 7〉 과학고 및 영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의견		빈도	%
선발비율 적정성에 대한 교사인식 (N=64)	비율이 다소 높은 것 같다	36	56.3
	적정하다	25	39.1
	비율이 다소 낮은 것 같다	2	3.1
	기타(때에 따라 다름)	1	1.6
적정예상 사회통합전형 비율 (n=38)	5%	5	13.2
	5-10%	2	5.3
	10%	24	63.2
	15%	1	2.6
	20%이내	1	2.6
	25%	1	2.6
	30%	1	2.6
	무응답	3	7.9
선발비율 자율성 부여 (N=39)	학교별 자율성 부여	26	66.7
	현행과 동일	13	33.3
적절한 선발 전형방식 (N=64)	일반학생과 동일방식	47	73.4
	일반전형과 다른 방식	16	25.0
	둘다	1	1.6
사회통합전형대상 지원자격 적절성 (N=64)	적절	47	73.4
	적절하지 않음	16	25.0
	무응답	1	1.6

“현재의 선발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35명의 교사들 중 가장 많은 수인 23명(65.7%)이 정원의 10% 내외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을 원했으며, 다음으로는 5%, 5-10% 등의 순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금의 20% 선발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들과 기타의견을 준 39명의 교사들에게 과학고별로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의 선발 비율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6.7%인 26명은 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을 하였고, 33.3%인 13명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선발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선발비율을 정하는 것에 더 많은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심층 면담 분석

과학고등학교의 선발비율에 대해 교사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보았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일정한 비율을 정한 후에 일반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재의 사회통합전형 방식에 대해 다소 불편함을 나타내었다. 교사들은 선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정원내 20%의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선발시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교사 A)

중간에 과학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학교차원에서 선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이 학생이 정말 과학고에 맞는 학생인가를 보는 것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 즉,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과학고등학교의 힘든 교육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B)

과학고의 선발 비율은 1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학교 재량으로 조절하거나 영재 고등학교처럼 정원외로 뽑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 (교사 C)

이처럼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선발시에는 정해진 선발비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선발 후 이 학생들이 겪어나가야 할 과학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적응에 초점을 두고 이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사회통합전형 선발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1) 설문 분석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반전형학생들과 따로 선발하는 현재의 전형방식에 대해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전체 64명의 교사들 중 73.4%인 47명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5.0%인 16명은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일반전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주어, 대다수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 전형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일반전형과 다른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면 어떤 선발방식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다면적인 평가(예;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들은 미성취영재 혹은 잠재영재가 존재하므로 표준화검사보다는 영재교육 전문가 입학사정관 그룹을 통한 다면적 인터뷰와 학생 관찰 및 면담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 등)와 다양한 판별기준(예;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 판별 기준으로 선발 등)과 같이 선발 내용이나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였으면 하는 응답을 보여 주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과반수 이상인 전체의 73.4%의 교사들(47명)은 “현재의 지원자격이 적절하다”고 대답하였고, 25.0%인 16명의 교사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생들의 지원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 교사들에게, 어떻게 수정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더니, 대상자 조건의 수정(예; 대상자의 폭이 수정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도서벽지, 다문화, 군인가녀 등에 대한 사회통합 대상 전형기준이나 자격의 수정이 필요하다.), 입학방식의 간소화(예; 입학지원시 서류를 축소해 주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예; 사회통합전형은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갔으면 한다.)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심층 면담 분석

과학교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의 선발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았다.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판별시스템의 보완과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홍보, 학생의 잠재력을 판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학교의 초기 판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미리 선발한 다음 꾸준히 부모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외계층 학부모의 대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선발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학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인식이 심하다. 과학교등학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교사A)

학생들의 지원을 온라인으로 받고, 인증받은 기관에서 팀을 결성하여 방문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영재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영재 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 학기 단위로 입학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교사 B)

단계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면 한다. 잠재력을 가진 예비 후보를 1단계 교육 대상으로 조기 선발하여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한 관찰 과정을 거친 다음, 2단계 교육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2단계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만을 위한 고등학교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교사 D)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의 낮은 지원율을 보완하고 잠재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전형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3.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교사들 의견

1) 설문 분석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입학 후 학업 성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사회

통합전형 학생들의 입학 후 학업 성취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교사들은 전체 64명 중 18.8%인 12명이고, “대체로 만족한다”고 대답한 교사들은 전체 64명 중 9.4%인 6명이었고, 1명의 교사만이 매우 만족한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응답을 주었다. 반면,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 상태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전체 64명의 교사 중 12.5%인 8명이었고, 대체로 불만족한 상태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전체의 56.3%인 36명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교사의 68.8%인 44명이 사회통합전형 입학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표 8참조)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은 “수업에 대체로 잘 참여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64명 중 42.2%인 27명이고, “매우 잘 참여한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3.1%인 2명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비교적 잘 참여한다고 대답한 교사들은 전체의 45.4%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34.4%인 22명이며,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교사들은 전체의 18.8%인 12명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이 수업에 비교적 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학업성취에 대한 교사의견

사회통합대상자 학교생활	교사의견	빈도	%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사인식 (N=64)	매우 불만족	8	12.5
	대체로 불만족	36	56.3
	보통	12	18.8
	대체로 만족	6	9.4
	매우 만족	1	1.6
	무응답	1	1.6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에 대한 교사인식 (N=64)	매우 잘 참여	2	3.1
	대체로 잘 참여	27	42.2
	보통	22	34.4
	대체로 그렇지 않음	11	17.2
	전혀 그렇지 않음	1	1.6
	무응답	1	1.6
학업성취 향상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학업,심리, 정서적 지원 도와줄 멘토	21	33.9
	기초학업증진 수업 제공	21	33.9
	입학전 학업 프로그램제공	14	22.6
	경제적 지원	3	4.8
	기타	3	4.8

과학교 및 영재고 교사들에게 사회통합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64명의 교사들 중, 21명은(33.9%) 친구, 선배, 교사 등 학업·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멘토링을 기술했으며, 21명은(33.9%)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

프로그램(에듀브릿지 등)의 기초학업능력 향상을 손꼽았고, 고등학교 입학 전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브릿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22.6%인 14명이었다. 이 외에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거나(3명),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2명)한 교사들, 초등 및 중등 때부터 탐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1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심층 면담 분석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입학 후 학업성취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과학교등학교의 수업 난이도가 높은 관계로 선행학습의 기회가 적었던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일반전형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우려를 보였지만, 이런 상황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보여 주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려모로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긍정적이고 성실한 학생일 경우 적응을 잘해 나간다. 긍정적 마인드와 성실함이 수반되면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나중에 극복해 가는 경우가 많다.(교사 A)

과학교 학생들의 특성상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고, 학교 수업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그다지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라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이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도움을 많이 청하는 편이다.(교사 C)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 후 확실히 학업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상대평가로 주눅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부족한 과목에 대한 추가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업을 하는 동안 힘든 부분이 있으면 사회통합전형대상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게만 제공된다는 낙인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교사 D)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일반전형 학생들과의 기초학력 차이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교사들은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4.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교사들 의견

1) 설문 분석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입학 후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은 입학 후에 대체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전체 64명 교사들의 48.5%인 31명의 교사들이 응답하였고, 이 중 6명의 교사들은 사회통합으로 과학

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전혀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의 적응상태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교사들은 전체의 23.4%인 15명이며,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전체의 23.4%인 15명이며, 3명의 교사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절반정도의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을 위해 실시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현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교사들은 전체 64명의 45.3%인 2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만족한다”가 29.7%인 19명, “대체로 불만족한다”가 전체의 18.8%인 12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1명이며,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명으로 나타나, 지원프로그램이 “보통이거나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을 위해 현재 학교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 외에 별도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전체 64명의 48.4%인 31명이었고,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전체의 31.3%인 20명으로,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79.7%의 교사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대체로 불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교사도 전체의 11.0%인 7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교사들에게 기술하게 하였더니, 학교 내신성적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등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교사들이 전체의 78.1%인 50명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 정서 관련으로 집단 내 이질감으로 인해 위축이 된다고 대답한 교사들은 전체의 12.5%인 8명이었다. 기타 소수의견으로는, 학생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 공통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 다를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1명씩 있었으며,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대체로 성실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있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전체의 65.6%인 42명의 교사들이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생활 적응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의 17.2%인 11명이고, 개별 혹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 교사들은 전체의 7.8%인 5명이었으며, 문화지원 프로그램과 기관지원 프로그램, 금전적 지원, 대입준비 프로그램 등에 각각 1-2명의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9 참조).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친구, 선배, 교사 등의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31명(48.4%)의 교사들이 응답하였고, 도서, 급식비, 기숙사비, 활동비 등의 경제적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20명(31.3%)의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또한 이 학생들을 위한 맞

층형 개별 학업지도가 필요하다고 전체의 10.9%인 7명의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 자체가 사회통합대상자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원은 필요없다고 전체의 9.4%인 6명의 교사들이 응답하였다.

이 외에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지원체제에 대해 교사들에게 자유로이 기술할 것을 권하였더니,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여 주었다. 우선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적 차원에서는 “학업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기회 필요”, “경제적 지원 필요 (교재, 각종대회 출전지원 등)”, “학교 내에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업무담당자가 있었으면 함”, “학생들의 정서지원이 가능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꼭 필요함”, “현존하는 프로그램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함”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사회 체제적 차원에서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나, 대상 범위를 조금 줄이거나 정원 외 선발을 고려하여야 함”,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 고등학교 이전부터 일찍이 시작되어야 한다.”,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업적인 면에서는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들에게는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연구 중심의 교육이 필요”, “과학고 학사 일정 자체가 사회통합대상자 학생들이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진학에도 사회통합대상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9〉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교사의견

사회통합대상자 학교생활	교사의견	빈도	%
사회통합대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교사인식 (N=64)	매우 잘 적응	3	4.7
	대체로 잘 적응	15	23.4
	보통	15	23.4
	대체로 못 적응	25	39.1
	전혀 못 적응	6	9.4
사회통합 대상학생 학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인식 (N=64)	매우 불만족	2	3.1
	대체로 불만족	12	18.8
	보통	29	45.3
	대체로 만족	19	29.7
	매우 만족	1	1.6
사회통합전형 학생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N=64)	무응답	1	1.6
	매우 불필요	1	1.6
	대체로 불필요	6	9.4
	보통임	4	6.3
	대체로 필요함	31	48.4
	매우 필요함	20	31.3
	무응답	2	3.1

사회통합대상자 학교생활 교사의견		빈도	%
사회통합전형학생들 생활 어려운 부분 (N=64)	학업성취 관련 어려움	50	78.1
	문화, 정서 관련 이질감에 의한 위축	8	12.5
	기타	6	9.4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N=64)	학업 지원 프로그램	42	65.6
	학교생활 적응 멘토링 프로그램	11	17.2
	개별 혹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	5	7.8
	문화지원 프로그램	2	3.1
	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	1	1.6
	기타(금전적 지원)	1	1.6
	기타(대입 전형 준비 프로그램)	1	1.6
	무응답	1	1.6
	친구, 선배, 교사 등의 멘토링(상담)	31	48.4
	경제적, 문화적 지원	20	31.3
사회통합전형 학생들 학교생활적응 위한 필요지원내용 (N=64)	맞춤형 개별 학업지도	7	10.9
	일반 전형학생들과 동등한 지원	6	9.4

2) 심층 면담 분석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이 입학 후 겪게 되는 학교 적응상의 문제는 크게 학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업적인 측면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입학한 일반전형 학생들과 달리, 학교 외 별다른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입학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학업성취 수준이 다른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적응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학업적인 측면 외에도 학생들의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문화적인 차이 또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에게는 적응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상태평가로 학업등급이 정해지고, 관련하여 진학이 결정되다 보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교사 A)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나 생활면에서 뒤처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생활의 수준이나 부모의 직업 등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학업적, 문화적 뒤처짐에 따른 스트레스로 확실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적 경험의 부재는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입학전 문화체험도 중요하고 입학 후 일반전형 아이들과 함께 문화체험을 하면서 공감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교사 B)

학교 내에서 경쟁 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또는 경쟁 환경에 취약한 아이들은 경쟁에 뒤처지면 심하게 자존감이 하락한다. 그래서 소외 영재나 미성취 영재 등에 대한 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가에 의한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등의 정서, 심리적 상담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교사 C)

입학 이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 또래 상담 등을 통해 좌절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업을 보조할 수 있는 보충수업이나 멘토링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D)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과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낮은 자중감과 스트레스를 학생 스스로 극복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학업 보충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 정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전형과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적응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64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4명의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은 현재 과학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원 내 2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 비율이 다소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반수이상의 교사들은 정원내 10% 내외의 선발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현준과 오세희의 연구(2011)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학생들의 수준이나 잠재력보다는 일정한 비율에 맞추다 보니 입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교사들은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같은 선발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조용기(2009)의 연구에서도, 학교의 추진 인재상에 부합되는 소외계층 인재들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충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 선발비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각 학교마다 고정된 선발비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은 지켜지거나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환경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사회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아무리 뛰어난 지적 능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높은 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 등은 학생의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정익중, 2008; Mayer, 1997)로 미루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의 환경이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개별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공교육의 기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소외계층을 위한 일정 비율의 선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능성 있는 보다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전형의 선발 방식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전형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해 교사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학교 이외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일반전형 학생들보다 학업 준비도 면에서 뒤쳐진 상태에서 입학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중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교사들은 여기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다양한 학교 내·외 학업멘토링과 기초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활발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도 이들을 위한 학업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한 흑인학생들은 처음에는 매우 낮은 학업 성적을 보이다가 다양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이 차츰 상승하여 고학년이 되면 다른 인종 집단과 그 차이가 많이 줄어 들었다고 한다(Arcidiacono et al, 2012). 이는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에게 입학 전이나 입학한 후에 학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학업적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교사들은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 저에는 학업 저성취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학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로 위축된 심리적 상태를 보살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와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박효정, 장수정, 이재덕, 2014; Frecknall, Luks, 1992)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학생들의 선발 및 학교적응과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선발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로운 새로운 선발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성장 환경의 영향에 의한 결과로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학업적, 심리·정서적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선발방안의 제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보다 많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교사들은 과학교에서 정한 사회통합 대상 학생의 선발비율 20%에 대해서는 다소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0% 내외의 선발비율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전 교육기관에서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아무런 교육적 중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통합 전형 비율을 줄인다면,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적절한 학생의 선발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과의 논의와 심층 면담 등을 통한 다방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들은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낮은 학업경쟁력과 이와 관련된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을 학업적으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학 후뿐만 아니라 입학하기 전에도 일반 학생들과의 학업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입학 시점에 일반학생들과의 학업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초 학과목의 설치나, 뒤처진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이 가진 가정적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인지적인 능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해 보인다.

넷째,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뿐 아니라 학부모들과 학교가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수나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소외계층 학부모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자녀의 교육과 연계시킬 다양한 채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사들도 사회통합전형 학생들과 직접 부딪히기 전에, 교내 연수 등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은 학업이나 생활에 있어 조기에 중재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도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하여 사회통합전형대상 학생들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영재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과학고등학교 간 지역별 차이,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영재학교의 사회통합전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비교 등을 분석하기에는 다소 적은 수라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과학고와 영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실시한다면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통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이 원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과학고와 영재고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전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기수(2012).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대학적응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사상연구*, 26(1), 1-35.
- 김안나, 김성훈(2009). 대입 전형유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와 그 의미. *교육사회학연구*, 19(2), 92-206.
- 김정숙, 성열관(2014). 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4-41.
- 노경란, 윤수정(2012).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적응 특성에 대한 이해: 4년제 여자대학교의 입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발전논총*, 33(1), 91-118.
- 박미희, 홍백의(2010).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3), 27-50.
- 박지영, 박영숙, 이정은, 김수빈(2017).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생태학적 영향요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Child Health Nurs Res.* 23(2), 158-167.
- 박효정, 장수정, 이재덕(201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단연구(II). CR 2014-4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한미영(2016). 자율형 사립고, 외고, 국제고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한국교육*, 43(2), 67-98.
- 이재덕, 정미경, 정은진, 양희준, 차성현, 정향운(2016). 사회통합전형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담당자와 전문가 집단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4(3), 21-49.
- 정익중(2008). 아동청소년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지*, 96-122.
- 정현철, 류춘렬(2016). 과학영재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 2016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운영사업 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 조용기(2009).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방안 및 미지정 사립고와 공립고 발전방안. *정책연구보고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 주현준, 오세희(2011).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제도에 대한 교원 인식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2), 213-235.
- Arcidiacono, P., Aucejo, E. M., & Spinner, K. (2012). What happens after enrollment?: An analysis of the time path of racial differences in GPA and major choice. *IZA Journal of Labor Economics*, 1(1), 5.
- Frecknall, P. & Luks, A. (1992). An evaluation of parental assessment of big brothers, big sisters program in New York city. *Adolescence*, 27(107), 715-718.
- Mayer, S. E.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eachers' perception on admission groups of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ience academy

Jiyoung Ryu · Mijin Kim (KAIST GIF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s on admission groups of affirmative action programs at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ience academy. 64 teachers from science high school and gifted science academ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regarded that the allotted entrance ratio to disadvantage groups should be reduced for the reason that their adjustment to the life of science high school may be difficult. The teachers agreed to the terms of qualification needed for the students to be able to apply to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s of the school, and preferred the autonomy of school with their own right to decide the entrance ratio. They suggested academic mentoring programs to help the students to achieve much more. For students' soci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counseling programs and/or mentoring programs were also suggested.

[Keywords] Affirmative action, Disadvantage students, Science high school, Gifted academy in science, Admission